

“땅끝 해남으로 반려견 데리고 오세요”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서 27~28일 1박2일 진행 2~3회는 10월 중 개최...반려인 소통하는 시간 제공

전남 해남군은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에서 반려견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 캠핑 '걸'을 1박2일 동안 진행한다. 8일 밝혔다.

3년차로 접어든 반려견 캠핑은 전국 반려견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회 캠핑은 8월 27~28일, 2~3회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려견캠핑 '걸'은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테마촌 숲속캠핑을 하고 생태탐방로, 해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해남로컬푸드를 활용한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기, 댕댕이와 추억포토존

에서 사진 찍기, 반려견 트레킹 등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특히 반려 에티켓을 위한 댕댕이 서약서 작성하기, 댕댕이 자랑대회, 펫로스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해 반려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1일 과정과 1박2일 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두 20여팀을 모집하며 반려견은 소형, 대형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 가족은 해남군 관광실 관광마케팅팀(061-530-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땅끝해남의 청정 자연 속에서 반려견과 견주 모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남 문화재자료 제108호 ‘완도 청산도 석조 보살 좌상’으로 명칭 변경 가결 됐다

1984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청산면 소재 「읍리 하마비(邑里 下馬碑)」가 「완도 청산도 석조 보살 좌상(莞島 靑山島 石造菩薩坐像)」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고려 말~조선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완도 청산도 석조 보살 좌상」은 당시 석비 하단에 ‘하마비’라고 시멘트로 새긴 것이 그대로 문화재 명칭이 됐으나 문화재 특징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은 ‘문화재 제 이름 찾기 사업’을 추진했다.

하마비(下馬碑)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라는 의미를 지닌 석비(石碑)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련 문서 및 자료 검토, 문화재 전문 위원과 향토사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5월 전라남도에 문화재 명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8월 3일 명칭 변경이 가결됐다.

청산면 읍리에 있는 「완도 청산도 석조 보살 좌상」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해 세워졌으며, 높이 100cm, 폭 70cm, 두께 15cm로 민간 신앙과 불교가 결합한 신앙물로 평가받고 있다. 앞면에는 보살상이 새겨져 있는데 머리에는 보관(寶冠)이 표현되어 있으며, 세워진 시기는 고려 말 또는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청산도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려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해일(慧日) 스님이 청산도에 절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위치와 사찰 명칭에 대한 기록은 없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 정착’ 추진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 추진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이 정착되면 군민과 공직자 간 신뢰 기반 구축과 함께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 각 부서 팀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평가와 함께 직렬별 전문

문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민선 8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 실시 ▲위민행정 친절 10대 실천수칙 마련·시행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 전화 친절 응대 요령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위민행정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말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과 진도군이 확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개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라며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또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파프리카 부산물, 발효사료로 환골탈태

강진군,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비용절감 기술 시범 추진

강진군은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인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비용 절감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파프리카 부산물을 한우 농가의 TMR 사료 원료로 활용해 사료비 절감 및 축산물 생산 안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사료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축산 농가의 고민이 깊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군은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인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절감 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해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와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절감 기술 시범

사업’은 TMR 자가 배합을 해온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파프리카 생산단지의 숙아낸 과실 등 신선한 상태의 부산물을 TMR 사료 원료로 활용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원료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파프리카 부산물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절감되고 가축분뇨를 다시 토양으로 환원하는 경축 순환농업이 이루어지면서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발효 유용 미생물 활용 및 파프리카 배합 비율 등 가축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강진의 파프리카 부산물을 수거해 TMR 배합사료 중 파프리카 함량별 영양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배합비로 농가에 제공할 계



획이다. 또한, 부산물 생산 현장 컨설팅 및 기존 TMR 배합비 분석 등 현장에서 축산 농가의

필요할 때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에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연구개발과장은 “국내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양질의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TMR 사료 활용 등과 같은 한우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축산 경영이

장흥군, 저수지 수변 정비

장흥군은 깨끗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저수지 풀베기 사업은 저수지 제방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제방 누수, 시설물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저수지의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사업비 8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군 관리 저수지 81개소 제방면적 74,000㎡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휴가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농촌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로변부터 풀베기를 실시하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대풍 ‘송다’의 영향으로 반가운 단비가 내려 저수지의 저수율이 70%가 넘어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